

한여름 폭염 식히는 범죄와 탐정의 세계

추리소설 독자 저변확대로 출판계 화제... 피서용 문학 벗어나는 경향도

한여름 폭염을 식히기에 제격인 책은 역시 추리소설. 기상천외한 범죄와 이를 해결하는 탐정의 숨막히는 대결 등이 펼쳐지는 한편의 추리소설은 더위를 잊기에 충분한 재미를 안겨준다. 그런데 최근 여름철 피서용 책으로만 여겨져왔던 추리소설이 독자층을 넓히면서 특정 계절과 무관하게 읽히고 있어 출판계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이같은 추리소설계의 현상은, 출판량의 증가와 다수 출판사들의 참여, 그리고 국내 창작 추리소설의 증가 추세로도 입증된다.

현재 출판되고 있는 추리소설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주로 영미권에서 나온 베스트셀러 신간이 수입돼 거의 시차 없이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와 저작권에 저촉받지 않는 작품으로 고전에 속하는 것들이 출판되고 있다. 작품의 성향 역시 '아가사 크리스티'류의 고전들로 살인사건과 탁월한 능력의 명탐정이 등장하는 작품과 최근 수입된 싸이코 써스펜스·정보소설 등 둘로 구분된다. 「양들의 침묵」과 같은 잔혹한 대량학살이 벌어지는 싸이코 써스펜스와 톰 클랜시의 일련의 작품들로 대표되는 최첨단 무기와 테러리스트가 소재인 정보소설. 이밖에 하드 보일드, 스파이, 모험, 사회와 소설 등이 현대추리소설의 세분화된 장르에 속한다.

서점가에 나와 있는 추리소설은, 70년대에 유행했던 시리즈물과 단행본이 있는데, 시리즈물로는 할리퀸 문고의 시리즈와 해문출판사의 「Q미스터리」, 전80권인 「아가사 크리스티 시리즈」, 「미스터리 컬렉션」(일신서적) 등이 있다. 청소년을 겨냥한 이런 문고판 시리즈의 인기를 잠재운 단행본은 무수히 많다.

단편결작선과 유명작가 장편 인기 우려

판매면에서 지명도가 높은 유명작가들의 장편에 못지 않은 호조를 띠고 있는 게 고전 단편모음. 미국추리작가협회가 시상하는 에드가상 수상작 중 단편만을 골라 엮은 「에드가상 수상작품 1~3」(정태원, 명지사)은 전통적추리소설과 정통 심리 써스펜스·경찰수사소설 계열에 드는 수작들이 망라된 작품집.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한 「세계 미스터리 결작선 1·2」(정영목·정태원, 오늘) 역시 코난 도일·스티븐 킹 등 영미추리작가 22명의 우수 단편만을 모은 책. 또 추리소설의 효시로 불리는 「모르그 거리의 살인」 등을 담은 「세계의 결작 미스터리」(정태원, 한길사) 전3권도 있으며,

계절과 무관하게 읽히기 시작한

추리소설은, 전통 탐정물류의

'고전'과 싸이코 써스펜스 등

'新추리'로 장르가 구별된다.

국내의 유명작가들의 장편은

물론 고전 중심의 단편모음,

기획 출판물 모두가 골고루

읽히고 있는 것이 추리소설계의

특징에 속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연간 베스트셀러소설의 절반 가량이 추리소설인 일본의 작품 가운데, 아마무라 미사의 「살인의 축제」 등 12편의 단편을 골라 실은 「일본 써스펜스 결작선」(추리작가협회, 고려원)도 있다. 여기에 싸이코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히치콕을 기리기 위해 1956년 창간된 「히치콕 미스터리 매거진」에 실린 작품만을 엮은 「히치콕 서스펜스 결작선」(설리번, 이동민, 고려원)도 선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결작을 모아 읽는 즐거움으로 인해 결작선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추리소설의 경우도 유명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것은 마찬가지다. 변호사에서 작가로 변신해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91년) 「펠리컨 브리프」(92년) 「의뢰인」(93년)으로 3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낸 존 그리샴은 신예인작가 중 한사람. 특히 「펠리컨 브리프」(정영목, 시공사)는 미모의 법대 여대생이 미국 상층부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줄거리로 짜여진 법정 스릴러로 국내에서도 상당한 판매량을 올린 작품이다.

이색 기획출판물도 상업적 성공

「용의 눈물」 「미드 나이트」 「분노의 풍차」의 작가로 최근 「와치스」(신상운, 우남)로 강한 써스펜스를 자랑하며 재차 인기작가임을 확인한 딘 R. 쿤츠의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또 이에 못지 않은 작가가 스티븐 킹. 그는 영화 「미저리」로 기억되는데, 「잇」 「신들린 조사」 「빨래집게」 등의 작품으로 독자들과 만난다. 「필요한 경우」로 에드가상을 수상한 바 있고, 「5명의 천사들」로 의학 작가상을 받았던, 매디컬 스릴러물의 마이클 크라이튼 역시



여름철을 맞아 한 대형서점에 마련된 추리소설 특별코너.

뒤지지 않는 인기작가군을 형성한다.

모험소설에 보다 가까운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책 히긴스의 「폭풍의 연가」(이영환, 오늘)나 여류작가이면서 보기 드물게 본명을 쓰는 메리 히긴스 클라크의 「비밀의 책」(한기찬, 예하), 그리고 경찰수사물의 귀재로 추리계의 거장 스티븐 킹으로부터 「신비한 작가」라 불려졌던 에드 맥베인의 작품 「세마리의 눈먼 쥐」(서창렬, 성훈)도 많은 독자를 확보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로버트 러들럼의 「잃어버린 얼굴」(서계인, 고려원)과 성폭력 전문변호사이면서 신예 하드 보일드 작가로 떠오른 앤드류 박스의 「빨강머리 스트레가」(유병숙, 파워) 등도 요즘 추리소설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수작들에 포함된다.

한편 작가의 지명도에만 기대지 않고 출판사의 기획력에 의해 잘 팔리는 책들도 있어 관심이 간다. 먼저 CIA 특수첩보원으로 컴퓨터·어학에 능하고 플레이 보이면서 비폭력적인 전형적 모험소설의 주인공 마르코 링게가 등장하는 연작 「마르코 시리즈」(달무리)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5권이 출판됐고, 앞으로 10여권이 계속 출판될 이 시리즈는 포켓판으로, 「인디애나 존스」식의 재미를 앞세우고 있다. 사랑과 관련된 추리물만을 엮은 테마추리모음인 「러브 미스터리」(정태원, 비전)는 헨리 스레스 등 15인의 작품 29편을 실고 있어 기획 출판물로 구별되며, 동아출판사의 「결작 추리소설 모음」 전4권 역시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 이야기」 「잠겨 있는 방」을, 주제에 따라 「영국탐정들」 「여탐정들」로 각권을 나눈 점이 특색 있다. 「세계 공포 미스터리」란 부제가

달린 「토탈 호러」(박상춘, 서울창작)는 「미래와 외계의 공포」를 주제로 고마쯔 사쿄요의 단편 「홍폭한 탄입」을 비롯한 12편의 작품을 공포의 인간·환상·미래·외계로 장을 구성해 엮은 이색적인 책이다.

최근들어 국내 작가군 내실 다져

추리소설은 번역작품 그것도 영미권의 작품에만 독자가 몰린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이 깨진 뒤 우리 작가들의 작품도 양산되고 있다. 물론 작품성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는 작가는 김성중씨. 「제5월」 「백색인간」 그리고 최근작 「슬픈 살인」(전4권, 추리문학사) 등이 그의 널리 알려진 작품명이다. 그런데 최근들어서는 많은 작가들이 김성중 아성에 도전해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창작물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죽음의 천사」의 정진섭씨 「악녀 두번 사다」의 이상우씨 등과 함께, 「김래성 추리문학상」을 수상한 「미스코리아 살인사건」의 이승영씨 「얼음 덩어리」의 임사라씨 「저런 손끝」의 권경희씨도 작품성과 상업성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장르로 이제는 피서용 문학에서 벗어난 추리소설은 고전적 추리물에서 최첨단의 정보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대량 출판돼 어찌면 독자들의 선택을 어렵게까지 한다. 추리소설 선택요령을 한국추리작가협회 사무국장 정태원씨는 「시간과 경비가 들지만 작가의 작품 스타일을 파악해 읽는 것」이라면서, 「전문가나 동호인들의 모임에서 추천하는 작품을 골라 읽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최태원 기자